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황수정 컴백’ 누리꾼들 찬반 격론

뮤직비디오 촬영 알려지자 ‘복귀반대’ vs ‘반성충분’ 충돌



2001년 히로뽕 투어 혐의로 기소돼 징역유예를 선고받았던 탤런트 황수정(34)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연예계 복귀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찬반 입장으로 나누어 격론을 벌이고 있다.

연예계"라며 "연예계는 무법지대나. 복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

누리꾼 'christmas42'도 "마약사범으로 법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버젓이 TV에 나오면 어린이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jina9946"도 "다른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나 도박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우던 여자 탤런트인데 이젠 아니지 않나"라며 "용서가 되는 게 있고 아무런 시간이 지나도 보고 싶지 않은 연예인도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올렸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이 복귀 반대 의견을 내놓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니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cosmos'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린 댓글에 "호수의 '후궁글짜'라는 소식이 생각난다"며 "5년 동안 자기 자신도 충분히 힘들었을 것이고 반성했을 테니 이제 다시 좋은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아이디 '보또또'도 "요즘 연예인들 사고 치고도 3개월이면 충분한 자숙 기간을 가졌다면서 당당히 컴백 하지 않느냐"며 "5년 전에 비해 (사람들의) 인식도 변하지 않았잖나. 참됐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황수정은 2001년 11월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징역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년간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으며 현재 가수 왁스의 뮤직비디오를 촬영 중이다.

Living TV advertisement for 'Happy Travel is Good' featuring a woman and text about travel packages.

Advertisement for '국제보청기' (National Hearing Aids) with a horse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케이블·위성TV 30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YTN, MBN, KTV, etc.) and their respective program schedules.

Small advertisement for 'www.kipbc.com' with a logo and website information.

Small advertisement for 'www.kipbc.com' with a logo and website information.

Small advertisement for 'www.kipbc.com' with a logo and website information.